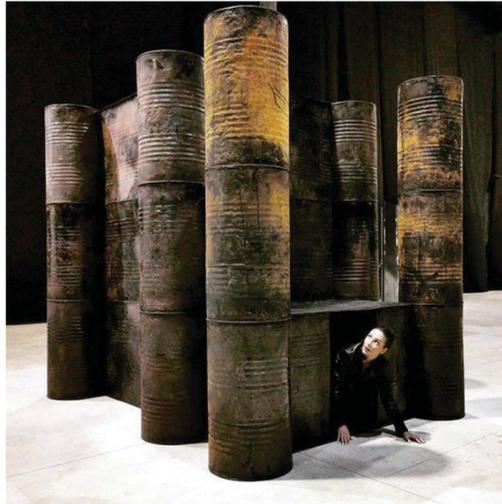


5·18정신 동시대성 예술적 재조명 관계미학의 거장 리암 길릭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 주목 할 만한 전시



'놀이가 미술이 될 때'전에 소개될 손몽주 작 '동동동'



5·18 40주년전에 참여하는 인도 작가 쉐라 고우다의 'Darkroom'



봄맞이 가족 체험전 '놀이가 미술이 될 때' 눈길
작가 25명 5·18 40주년 특별전·산악인 김홍빈 다큐전
본관 기획전 11회·하정웅미술관 4회 등 총 21회 전시회

지난 1992년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 승보)에는 지난해 개관 이래 가장 많은 24만 5000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또 개관 후 처음으로 '미술관 5개년 혁신 발전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미술관 운영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공립미술관 1위', '도시 감성을 풍요롭게, 상상력이 넘치는 미술관', '오락과 체험, 놀이의 개념을 현대미술과 융합하는 21세기 미술관' 등을 비전으로 내건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전시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미술관은 본관 기획전 11회, 하정웅미술관 4회, 사진전시관 4회, 어린이미술관 2회 등 총 21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한 5·18 40주년 기념전, 세계적인 아티스트 리암 길릭 초대전, 가족 체험전 '놀이가 미술이 될 때' 등 눈길을 끄는 전시가 많다.

첫 테이프를 끊는 기획전은 봄맞이 가족 체험전 '놀이가 미술이 될 때' (2월28일~ 4월19일)전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동화적 상상력과 놀이를 접목해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에 현대 과학을 결합시킨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획이다. 상상하는 생각, 놀이의 발견, 움직이는 미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손몽주·오창근·주홍·최문석·지용호·김계현 등 17명의 작가가 60여점을 선보인다.

5·18 40주년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전(5월8일~8월16일)은 본관 1·4전시실, 중외공원 일대 등

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5·18 정신의 예술적 재조명을 통해 5·18정신의 동시대성을 한 자리에서 성찰해보는 이번 전시에는 세계적인 작가 쉐라 고우다(인도)를 비롯해 오스트리아의 피터 바이벨, 독일의 미샤엘라 멜리안 등 해외작가들과 광주지역 20대 청년작가 그룹 장동필렉티브 등 국내외의 25명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 핵심 주제는 80년도 당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집단 지성과 이타심'으로 설정했다.

하반기 화제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기념 특별전으로 준비한 영국미술그룹 yBa 출신 관계미학의 거장 '리암 길릭' 초대전(9월2일~2021년 1월26일)전이다.

지난해 광주를 방문해 공간 리서치 등을 진행한 리암 길릭은 전시장으로 규정된 공간 이외에도 미술관 내외부에 숨겨진 공간 곳곳을 재해석해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미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광주정신'에 영감을 받아 5·18 40주년을 맞는 광주의 의미를 반영한 새로운 신작도 발표한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한 '달빛 동맹전-달이 떴다' 광주전(6월4일~7월12일)도 열린다. 대구미술관 전시에 이어 열리는 연합교류전은 양 기관의 소장 작품 중 광주와 대구의 근대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심으로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 74점을 전시한다.

하정웅미술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년 하정웅 컬렉션 '불혹'전(3월4일~6월21일)을 개최한다. 세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거나 5월과 그 시대성을 반영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된 하정웅 컬렉션 중 광주의 오월을 담은 16명 작가의 작품 1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사진전시관에서는 에베레스트 등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광주 출신 세계적 등반가 김홍빈의 산악인생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5월 20일~8월 16일) 전시를 선보인다. 김홍빈은 매킨리 단독 등반 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 모두를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도전을 계속했다. 그의 드라마틱한 삶의 장면들을 스펙터클한 산악사진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5개년 혁신발전방안에 따른 중외공원과 미술관 공간 환경 개선 작업도 시작된다. 중외공원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국비 27억 원이 확보되면서 첫발을 댄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을 위한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시민서비스 공간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 미술관 로비의 자료실을 '북 라운지'로 조성해 만남의 장소로 변모시키며 어린이 미술관의 모유 수유실 확장 등을 추진한다.

그밖에 소장품 수집에도 적극 나선다. 초기 미술관 개발 단계에서 광주 전만 작가를 중심으로 소장품의 다양화 및 지역정체성을 강화했다면 올해부터는 양적 수집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의 근·현대미술사 중요 작품 위주의 수집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수 예술마루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

20·21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



"발레는 몰라도 '백조의 호수'는 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전 세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백조의 호수' (사진)가 여수에서 공연된다.

GS칼텍스 예술마루와 국립발레단(예술감독 강수진)이 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의 '백조의 호수'를 공동기획으로 선보인다. 20일·21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1막 1장 '왕자의 생일날', 2장 '백조의 호수가', 2막 3장 '왕궁 무도회', 4장 '백조의 호수가'를 무대에 올린다. 1막의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가 호숫가에서 처음 만나 추는 '백조 아다지오 파르티'와 여자 주역 무용수가 백조 오데트에서 흑조 오딜로 변신해 선보이는 32회전 푸에떼 등의 명장면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일 오데트와 오딜 역은 수석 무용수 박슬기가 맡았으며 지그프리트 왕자 역에는 솔리스트 허서명이 출연한다. 21일에는 드미솔리스트 심현희가 오데트와 오딜로 출연하며 드미솔리스트 하지석이 지그프리트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최초의 국립발레단으로 현재 국내 최고

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예매는 GS칼텍스 예술마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전은계 기자 ej621@

손예빈 작가 명동 프린스 호텔 레지던시 작가 선정

5주간 '소설가의 방' 입주 작품 집필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거주나 전시 공간, 작업실 등 창작 공간을 제공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국내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텔도 있을까. 서울 명동 프린스 호텔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명동 프린스호텔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소설가의 방' 입주 작가가 나주 출신 손예빈 소설가가 선정됐다. 장편소설 '호랑이사나무연덕'으로 2018 백호인문대상 나주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손 작가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명동 프린스호텔 '소설가의 방'에 입주한다.

손 작가는 "소설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 명동 프린스 호텔 '소설가의 방' 운영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울러 5주 동안 소설 집필에 전념해 좋은 작품집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동 프린스호텔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소설가의 방'은 지난 2014년 소설가 윤고은이 한 잡지에 기고한 수필 '호텔 프린스의 추억'에서 시작됐다. 수필을 읽은 프린스호텔 관계자가 영감을 얻어 작가에게 객실을 제공해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회사에 제안한 게 계기가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사상사 '이상문학상 사태' 사과... "운영방식 수정"

"올해 수상자 발표 않기로"

문학사상사는 최근 불거진 이상문학상 운용 논란과 관련 계약조건을 고치고, 아울러 올해 수상자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문학사상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임지현 대표 이사 명의 공식입장에서 "제44회 이상문학상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와 그와 관련해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김근희 작가, 최은영 작가, 이기호 작가, 윤이형 작가를 비롯해 이번 사태로 상처 입으신 모

든 문인 분들께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과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학사상사는 "좀 더 시대 정서에 맞고 수상 작가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과 운영방식 등을 수정해 보다 새로운 이상문학상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작가, 독자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대작위원회를 조직해 체계성과 공정성에 더욱 힘을 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상문학상 논란은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된 작가들이 수상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